



전방위 문화 기획자 '네버마인드' 대표 남·유·진

인디문화 대중과의 통로 열다

광주시 동구 한미소풍 사거리 건물 지하에 자리잡은 컬처 클럽 '네버마인드'는 광주 인디문화의 전진 기지다.

지역 밴드들과 '장기하와 얼굴들' 등 인디 뮤지션들의 공연이 열리고 지금은 잠시 중단됐지만 독립영화를 지속적으로 상영해온 '네버마인드'를 꾸리고 있는 이는 문화 기획자 남유진(36)씨.

그는 '네버마인드'를 거점으로 다양한 행사를 꾸리는 전방위 문화기획자이자, 지역문화의 파수꾼이다.

남씨는 올해로 6화째를 맞는 '광주인디뮤직페스티벌'(이하 광인뮤페)의 산파다. 누구도 가능성을 떠올리지 않을 때 그는 일을 저질렀고, 지금 광인뮤페는 크라이넛 등 유명 밴드 30여팀이 7시간 넘게 난장을 벌이는 음악축제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대인시장 프로젝트 '네버마인드'를 선점해 인디밴드들의 연습공간과 녹음 레코딩 시설 등을 마련하려 애쓰는 중이다. 또 매주 토요일에는 대인시장에서 열리는 프리지 공연을 주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직업을 하나 더 붙였다. 광주시가 주최하는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의 음악감독을 맡은 것이다. 지금까지 음악감독은 서울 지역 기획자들의 몫이었다.

매주 토요일 대인시장 프리지 공연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감독 맡아

"아마추어들 문화공간 만들어줄 것"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음악축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있었죠. 행사 초창기부터 꼭 지켜왔고, 조금씩 참여를 했지만 직접 책임을 지게 되니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남씨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 이번 페스티벌이 청소년들을 비롯한 음악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선대 금속공학과 91학번인 남씨는 감옥까지 다니는 열혈 운동권 청년이었다.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서울로 터전을 옮겨 공장 등에서 일하다 '문화'로 눈을 돌리게 됐다.

그리고 2002년 광주로 돌아와 전남대 후문 '네버마인드'를 오픈했다. 하지만 경영은 너무 힘들었고 노가다를 하며 돈을 벌며 임대료 등을 충당하는 시간이 계속됐다.

"정치적 고민들의 연장선에서 일상을 변화시키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죠. 독립문화에 눈을

뜬 거죠. 힘들었지만 오기가 발동했어요.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다양성을 지키려는 신념이라고 할까요."

남씨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건 지역 밴드들이 고사되는 현실이다. 많은 팀들이 금방 사라져 버리고, 그나마 이름을 좀 얻으면 큰 무대를 찾아 서울로 떠나버리는 게 지역 음악계의 현주소다.

그런 점에서 광인뮤페는 그에게 고지지만 행복한 도전이다. 광인뮤페의 최근 슬로건은 '동네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우공이산(愚公移山)', 동네는 진화한다'였다. 정치·경제와 마찬가지로 문화 역시 '지방'이 죽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네버마인드를 경영하는 건 여전히 힘들지만 아직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한 10년은 더(웃음). 이후에는 후배들이 맡아주면 좋겠고, 이곳을 아마추어들이 문화적 실험을 하는 공간, 살아있는 음악이 넘쳐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갤러리도 활용해도 좋구요. 지역 음악인들을 소개하는 인디 레이블을 만드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문화 게릴라' 남유진의 꿈은 여전히 현재진행 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남유진기자 mjna@kwangju.co.kr

女體의 아름다움



25년 누드화 류영도 전 11~17일 대동갤러리

섬세한 묘사와 뛰어난 조형감각으로 여체를 그려내는 류영도(사진)씨가 오는 11~17일까지 광주대동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류씨는 이번 전시에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여성의 몸을 표현한 신작을 선보인다. 여체의 아름다운 곡선과 배경으로 여백의미를 강조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그는 색면 추상을 배경으로 25년 정도 여체의 누드화에 집중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가로 240cm, 세로 172cm인 대작을 포함해 50여 점을 내놓았다.

역동적인 몸 동작과 인체의 아름다움

를 최대한 살린 대신, 불필요한 표현을 생략한 작품들이다.

누드화를 전문으로 그리는 그는 누드화지만 소품이나 비구상 이미지를 사용해 조형적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고 있는 작가이다. 추상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여성의 몸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특히 '관능적이지 않은 관능'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체의 은밀한 부위를 일부러 가리거나 섬세하게 표현하지 않아 누드화를 볼 때 흔히 갖는 호기심과 부담감을 최소화한 것이다.

그는 광주 출신이지만 서울에서 더욱 많은 활동을 펼쳤고, 뛰어난 소묘를 바탕으로 표현된 인물의 생생함 등을 통해 명성을 쌓고 있다.

조선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그는 대한



'여인의 향기'

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고, 서울, 대전, 광주 등지에서 수차례 개인전을 가졌다. 문의 062-222-0072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옹달샘' '비목'... 우리 가곡의 향연

작곡가 구희영 교수 초청 '가곡부르기' 12일 호신대

매일 두번째 금요일 함께 모여 가곡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광주전남 우리 가곡부르기 6월 모임이 12일 오후 7시30분 호신대 티 브라운 카페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옹달샘', '비목',

'꽃무늬 속에' '또 한숨이 나의 모란', '님이 오시는지' 등 우리에게 친숙한 노래를 함께 불러본다. 또 회원 박진영, 김민기, 김광수씨가 '그리운 금강산' 등을 들려준다.

그밖에 작곡가 구희영 (서강정보대·사건)교수를 초청, 조병화 시에 구씨가 가사를 만든 '사랑'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며 구씨의 오랜 친



구인 소프라노 박미애(광주대) 교수, 구씨 작품인 '낙화', '춘강'을 들려준다.

이날 함께 부를 가곡은 인터넷 내 마음의 노래

(www.krsong.com)에서 미리 감상하고 배울 수 있다. 참가비 1만원. 문의 016-694-45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청차미디어센터 개관 2주년 시청자 위한 영화상영 등 행사 풍성

시청자방송제작 지원과 미디어교육 등 시청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광주시청차미디어센터(이하 시청자센터)가 개관 2주년(12일)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2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11일부터 6월 한 달간 각종 공연과 강연, 영화상영 등이 이어지게 된다.

오는 11일 오후 2시 시청자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영화 '워낭소리'가 상영된다. 이번 영화상영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과 수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 등 장

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시청할 수 있게 마련됐다.

오는 12일 오전 11시부터는 개관 2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센터의 활동을 담은 영상물을 상영하며 사업성과 보고 및 향후 사업 방향 등을 발표한다. 이어 오후 5시에는 손석춘(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이 '미디어 융합 시대의 시민미디어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또 오후 7시부터는 시청자센터 야외공연장에서 '시청자와 함께 즐기는

오감만족' 공연을 갖는다. 이날은 퓨전국악팀 '아이리아'와 마당극놀이패 '신명', 모던록 인디밴드 '레모니카로니'의 공연이 펼쳐진다.

시청자센터 개관 2주년 기획사업인 '오늘의 광주, 시민단체 연속토론회'도 6월 중 10회에 걸쳐 열린다. 호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사회 각 분야에 걸쳐 현안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보는 기획 토론회로 광주전남남동남서남연립연합 15개 단체가 참여한다.

한편, 지난 2007년 개관한 시청자미디어센터는 6월 현재 정회원이 2천여명을 넘어섰으며, 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3만명에 육박하는 등 광주·전남·전북의 대표적 미디어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복기자 kps@kwangju.co.kr

청소년 음악축제 한마당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거로 연기됐던 2009 광주 청소년음악페스티벌이 13~14일 광주시청 문화광장 등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시 청소년문화의 집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경연과 가수들의 공연으로 구성됐다.

13일 오후 6시 유·스퀘어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전야제 행사는 1~2차 예선을 거친 청소년 밴드 10개팀이 경연을 펼치는 '전국 1318 뮤직배틀'과 광주출신 밴드 '홀리건'의 축하 행사로

13~14일 유·스퀘어 야외공연장 등서

구성 된다. 본행사는 14일 오후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의 메인 행사인 창작곡 경연대회에는 1·2차 예선을 통과한 8개팀이 열린 경연을 펼치며 지난대회 우승팀인 'Move it'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또 나폴레옹 다이나마이트, 타카파, 커번 언더그라운드, 폰부스, 김파다 등 인디 뮤지션들의 공연이 이어지며 인기 아이돌그룹 샤이니와 2

AM, 태군의 공연이 펼쳐진다.

그밖에 남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구성된 '노래하는 아이들'과 논산 계룡회사 난타팀 '디키즈 아우라'의 공연이 열리며 광주 mbc '난장'과 함께 하는 공연일과 해군 플러스, 3인조 신예 밴드 메이트의 공연도 기대를 갖게 한다.

공연장에는 노찬카페와 악기 제작 등을 해볼 수 있는 문화존 체험부스, 재활용 장터 등도 운영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공인중개사: 강영희
☎ 0621364-8700
H.P 010-4608-3700

(주)국민법률경매

지역	소매지	면적(㎡)	건평(㎡)	최종가
광안구	광안1동	112/94	1913㎡	6천1백
	광안2동	112/34	1914㎡	7천2백
	광안3동	122/37	1917㎡	7천7백
	광안4동	102/31	8천7백	6천
	광안5동	112/34	1913.5㎡	8천5백
	광안6동	102/31	8천4백	5천5백
	광안7동	105/32	8천4백	5천5백
	광안8동	105/32	8천4백	5천5백
	광안9동	105/32	8천4백	5천5백
	광안10동	105/32	8천4백	5천5백
남구	남1동	112/34	1913.5㎡	8천5백
	남2동	102/31	8천4백	5천5백
	남3동	105/32	8천4백	5천5백
	남4동	105/32	8천4백	5천5백
	남5동	105/32	8천4백	5천5백
	남6동	105/32	8천4백	5천5백
	남7동	105/32	8천4백	5천5백
	남8동	105/32	8천4백	5천5백
	남9동	105/32	8천4백	5천5백
	남10동	105/32	8천4백	5천5백
서구	서1동	112/34	1913.5㎡	8천5백
	서2동	102/31	8천4백	5천5백
	서3동	105/32	8천4백	5천5백
	서4동	105/32	8천4백	5천5백
	서5동	105/32	8천4백	5천5백
	서6동	105/32	8천4백	5천5백
	서7동	105/32	8천4백	5천5백
	서8동	105/32	8천4백	5천5백
	서9동	105/32	8천4백	5천5백
	서10동	105/32	8천4백	5천5백
동구	동1동	112/34	1913.5㎡	8천5백
	동2동	102/31	8천4백	5천5백
	동3동	105/32	8천4백	5천5백
	동4동	105/32	8천4백	5천5백
	동5동	105/32	8천4백	5천5백
	동6동	105/32	8천4백	5천5백
	동7동	105/32	8천4백	5천5백
	동8동	105/32	8천4백	5천5백
	동9동	105/32	8천4백	5천5백
	동10동	105/32	8천4백	5천5백

• 서구청원 광주세무사타운5층

• 권리분석·현장답사·입찰대행·낙찰·잔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일선·명도(이사)